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김 원 보
(제주대학교)

Wonbo Kim. 2006. The Acoustic Analysis of Monophthongs of Jeju Dialect Speakers in their 20s, 50s, and 70s or More and Their Vowel Inventorie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9. 125-136. This paper analyzes Jeju dialect speakers' monophthongs acoustically in their 20s, 50s and 70s or more, and tries to suggest vowel inventories of each of the three generations. It is revealed in this paper that Jeju dialect speakers in their 20s use the seven vowels of /i, e, a, ə, i, u, o /, those speakers in their 50s use the eight vowels of /ɔ/ plus the seven vowels, while nine vowels combining /æ/ with the eight vowels are used by Jeju dialect speakers in their 70s.

Key words: Jeju Dialect, monophthong, vowel inventory, generation

1. 서론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모음은 조음상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음에 비해 보다 빈번한 음변화 과정을 겪어왔다. 변화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정 모음이 소실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모음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제주방언에서도 젊은 층이나, 중년층이나 아니면 노년층에 속하는가에 따라 어떤 모음은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사용되지 않기도 해서 상이한 모음체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테면 제주방언 화자들 중 노년층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아래아 모음(으)이나 이중모음 ‘괘’가 젊은층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상이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방언화자들 사이에서 모음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방언에 있어서 세대별 모음의 변화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대상으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AS2029).

큰 관심을 끌지 못해왔으며, 더군다나 음향분석 방법에 기초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음향분석적 방법으로 20대, 50대, 70대 이후의 세대별로 제주방언의 단모음체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런 다음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대에 따른 제주방언의 단모음체계와 그 특징을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범위를 단모음체계로 한정했는데, 이중모음체계까지 포함하면 연구분량이 너무 방대해지고 자세한 논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방언화자의 세대에 따른 이중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는 차후에 다룰 예정이다.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 단모음의 음향분석을 위해서 제 2장에서는 먼저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로 정승철(1995)을 살펴볼 것이고, 제 3장에서는 음향분석을 통해 얻은 세대별 제주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제시하고, 세대별로 특히 존재여부가 문제가 되는 단모음인 [꺀, 꺁, 꺂]음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본고의 제 1장과 4장은 각각 서론과 결론이다.

2. 선행연구

정승철(1995: 27-28)은 제주방언 화자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개의 단모음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표 (1) 노년층의 단모음 체계

ㅣ	ㅡ	ㅓ
꺀	꺁	꺂
꺃	꺄	·

표(2) 젊은층의 단모음체계

ㅣ	ㅡ	ㅓ
꺀	꺁	꺂
	꺃	

표 (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년층에서는 아래아 모음 ㅓ가 사용되고, 또 전설중모음 ‘꺀’와 전설저모음 ‘꺁’가 구별되어 발음되지만 젊은층에서는 그 두모음이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년층에서는 ㅓ(아래사람에게 하는 응), ㅓ상ㅓ상(의태어/가볍게 걷는 모양), 바꺃(바람), 꺃(흙), 스나이(사나이) 등에서처럼 ㅓ모음이 여전히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꺀(whip)-꺀(boiled rice), 꺀(time)-꺀(dirt), 꺀(a lot)-꺀(sun)를 구별하여 전자는 전설저모음 ‘꺁’로 발음하고 후자는 전설중모음 ‘꺀’로 구분하여 발음한다.¹⁾ 그러나 젊은 층은 이런 발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못하고 ㄹ(아래아 모음)을 ‘ㄱ’나 ‘ㄴ’, 또는 ‘ㄷ’로 대치하거나 후자의 ‘ㅂ’와 ‘ㅍ’도 구별하지 못하여 전설중모음 ‘ㅍ’로 통일하여 발음한다.

젊은층의 말에서 7모음체계인 표(2)는 노인층의 모음체계 표(1)에서 모음상승화의 결과로 ‘ㅂ’ --> ‘ㅍ’가 되고,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ㄹ’ --> ‘ㄱ’로 상승하여 융합한 것으로, 이는 단모음의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모음변화라고 정승철(1995)은 주장한다. 정승철(1995: 28)은 ‘ㄹ’ --> ‘ㄱ’의 변화가 ‘ㅂ’ --> ‘ㅍ’의 변화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로 ‘ㄹ’와 ‘ㅂ’가 제주방언에서 동일한 분포제약을 보인다는 사실을 든다, 즉 제주방언의 노인층 언어에서 ㄹ는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비어두 음절에 출현하지 않아 다른 모음과 대립을 보이지 않듯이 ‘ㅂ’도 마찬가지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ㅍ’와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승철(1995)은 9모음체계가 실현되는 노년층과 7모음체계가 나타나는 젊은층을 구분하는 기준연령으로 자신의 책을 쓸 당시인 1995년을 기준으로 40대 초반까지는 젊은 연령층으로, 50대부터는 노년층으로 구분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다음의 언급에서 추측할 수 있다.

1970년대초 연소층에서 ‘[아래아 모음]’가 ‘ㄱ’에 합류한 것이므로 현재(1995년 당시) 40대 초반의 방언화자들은 ‘ㅍ’의 실현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정승철(1995: 30))

1995년 당시 40대면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50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승철(1995)은 현재 50대를 기준으로 50대까지는 7모음체계이고 60대부터는 9모음체계여서, 현재의 제주방언에서는 두가지 모음체계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좀더 객관적이며 정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측면에서 제주방언화자를 20대, 50대, 70대 이후로 세대별로 구분하여 음성자료를 수집하고 음향음성학적방법으로 분석하여 모음체계를 세대별로 제시하여 정승철(1995)의 주장과 비교하고자 한다.

3. 세대별 단모음의 음향분석

이 장에서는 제주방언의 [ㄹ]음을 비롯한 [ɺ, ɸ, ɰ, ɱ, ɳ, ɽ, ɿ, ʌ, ɷ, ʏ] 등의

¹ 현평효(1985: 345-347)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 ‘ㅂ’와 ‘ㅍ’ 둘다가 현대표준어에서는 모두 ‘ㅍ’로 표기되고 있으나 제주방언에서는 중세국어에서의 구별을 보존하여 전자는 전설중모음 ‘ㅍ’로, 후자는 전설저모음 ‘ㅂ’로 구별하여 발음한다.

9개 단모음을 세대별로 녹음하고 음향적으로 분석하여 포먼트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20대, 50대, 70대 이후의 각 세대별로 몇 개의 모음체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각 세대별로 모음의 음향적 특징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3. 1 자료녹음 및 분석방법

제주방언의 단모음에 관한 녹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방언조사지와 모음조사목록을 만들었다. 전자에는 피조사자의 이름, 성별, 나이, 현거주지의 거주기간, 조사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다음과 같이 각 모음별 녹음할 어휘목록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그림이 포함된 녹음단어카드를 만든 후 한번보고 발화연습을 한 후 두 번째 녹음을 하였으며, 실수하면 그 단어를 서너번 반복적으로 발화 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목표음을 녹음하였다.

(3) 제주방언 단모음의 조사목록²⁾

1. 이/i:/ 이마
2. 에/e:/ 배
3. 애/ɛ:/ 배(등짐을 질 때쓰는 줄)³⁾
4. 아/a:/ 아버지(아방)
5. 으/ɨ:/ 으르렁
6. 어/ə:/ 어머니(어멍)
7. 우/u:/ 우산
8. 오/o:/ 오름
9. 으/ɔ:/ 으(=응: 손아래 사람인 상대방의 하는 말에 동의할 때 하는 대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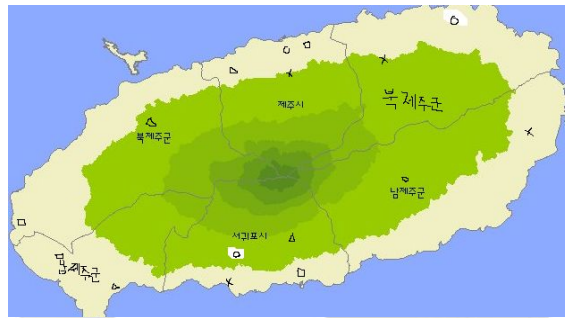
녹음대상인 피조사자는 모두 제주에서 출생 성장한 제주방언 화자들로 특히 70대 이상의 화자들은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제주 토박이들이다. 그리고 피조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²⁾ /ɰ/와 /ɰ/ 음은 제주방언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므로 단모음에 관한 논의인 본고에서는 그 두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였음.

³⁾ 표준어의 ‘배’는 제주방언에서 [배]로 발음되므로 중세국어의 ‘배’에서 온 것이며 표준어의 ‘배’는 제주방언에서 [배]로 발음이 되므로 중세국어의 ‘배’에서 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표준어의 배-베는 제주방언에서는 철자상 표기와는 정반대로 발음이 되고 있다. 즉, ‘배 화 해’의 모음발음에 있어서 노년층의 제주방언화자들은 전자를 저모음 ‘ɰ’로 발음하고 후자를 중모음 ‘ɰ’로 발음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표준어의 글자표기에 관계없이 전자의 발음을 ɰ 음으로 분석하고 후자를 ‘ɰ’음으로 분석하였다.

북제주군의 4개의 시와 군지역에서 각 시나 군별로 4개 마을에 남녀 각 명씩 8명 남녀 각 4명)을 선정하여 세대별로 32명씩, 20대 50대 70대 이후의 3 세대에 대해 총 96명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지역별 녹음지역은 다음과 같다

(4) 녹음지역



- 제주시- 0: 도남, □: 건입, ×: 영평, △: 노형
- 서귀포시- 0: 하원, □: 보목, ×: 법환, △: 도평
- 북제주군- 0: 평대, □: 고산, ×: 선흥, △: 남읍
- 남제주군- 0: 의귀, □: 신평, ×: 수산, △: 화순

녹음지역은 각 지역별로 산간마을과 해안마을이 균형을 이루고 동쪽 지역과 서쪽지역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녹음하기위하여 녹음마을을 선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녹음방법으로는 조용한 장소에서 피조사자에게 그림카드를 보여주고 순서대로 질문하면서 발화자의 음성을 녹음했다. 녹음장비로는 우선 Sony 사의 모델명 ECM-MSD1의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이용했으며, 프리앰프(Pre-Amplifier)로는 Creative Technology사의 모델명 SB0300을 이용했으며, Adobe Audition 1.5를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녹음자료를 직접 저장한 후 편집하였다. 그리고 녹음분석은 WaveSurfer 1.7.5음향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음자료를 분석하였다.

3. 2 세대별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포먼트 도표

제주방언에 나타나는 [으]모음을 비롯한 9개의 단모음을 세대별로 녹음한 후 단모

음의 안정구간의 포먼트 주파수를 측정하는 식으로 각 모음의 포먼트 주파수 값을 측정하였다. 표(5)는 제주방언에서 20대, 50대, 70대이후의 세대별로 9개의 모음에 대한 남자16명과 여자 16명 각각에 대한 제1 포먼트, 제2포먼트 및 제3 포먼트 주파수 값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5) 단모음에 대한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 포먼트 주파수 값

		20대		50대		70대이후	
		남	여	남	여	남	여
ㅣ	F1	270	271	292	287	296	292
	F2	2116	2573	2066	2653	2067	2256
	F3	3073	3611	2951	3458	3173	3281
ㅑ	F1	503	563	511	607	618	672
	F2	1824	2324	1790	2330	1796	2129
	F3	2586	3051	2550	3058	2685	2968
ㅓ	F1	507	542	494	532	487	492
	F2	1826	2304	1799	2327	1935	2307
	F3	2623	3087	2570	3059	2620	3032
ㅕ	F1	749	868	673	946	751	857
	F2	1380	1377	1212	1584	1255	1532
	F3	2726	2795	2463	2841	2552	2862
ㅡ	F1	338	394	322	404	345	359
	F2	1298	1585	1171	1282	1226	1469
	F3	2350	2801	2356	2756	2365	2736
ㅗ	F1	396	647	442	585	468	479
	F2	898	1062	1012	1100	1142	1181
	F3	2880	2790	2496	2913	2489	2917
ㅛ	F1	291	347	305	428	320	347
	F2	1197	1123	1346	1181	1210	1132
	F3	2555	2984	2581	2874	2453	2892
ㅜ	F1	356	388	391	405	383	424
	F2	788	787	809	865	809	920
	F3	2648	2799	2571	2776	2466	2805
ㅡ	F1	477	603	511	637	578	641
	F2	1002	991	919	998	910	1075
	F3	2779	3034	2653	2901	2642	2956

위의 표에서 70대의 경우 [으]모음의 포먼트 값은 남자가 578-910-2642, 여자가 641-1075-2956이다. 이 포먼트 값을 후설 중모음과 저모음인 [ㅓ], [ㅕ], [ㅗ] 모음과 비교해보면 [ㅓ]는 남자가 751-1255-2552, 여자가 857-1532-2862, [ㅕ]는 남자가 468-1142-2489, 여자가 479-1181-2917, [ㅗ]는 남자가 383-809-2466, 여자가 424-920-2805이다. 이런 비교를 통하여 70대 이상 남녀의 경우 으모음은 다른 모음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음의 고저와 관련이 있는 제1 포먼트에서 [으]는 [ㅓ]보다는 낮지만 다른 음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ㅓ]보다는 고모음이지만 다른 모음들 보다는 저모음이고, 음의 전후와 관련있는 제 2 포먼트에서는 [ㅓ]나 [ㅕ]보다는 낮고 [ㅗ]보다는 높아서 전자의 두음보다는 후설모음이지만 후자의 모음보다는 전설모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의 경우에 [ㅓ]와 [ㅕ]모음의 포먼트 주파수 값이 남자는 618-1796-2685와 487-1935-2620이고, 여자는 672-2129-2968와 492-2307-3032로 음의 고저와 관련이 있는 F1에서 확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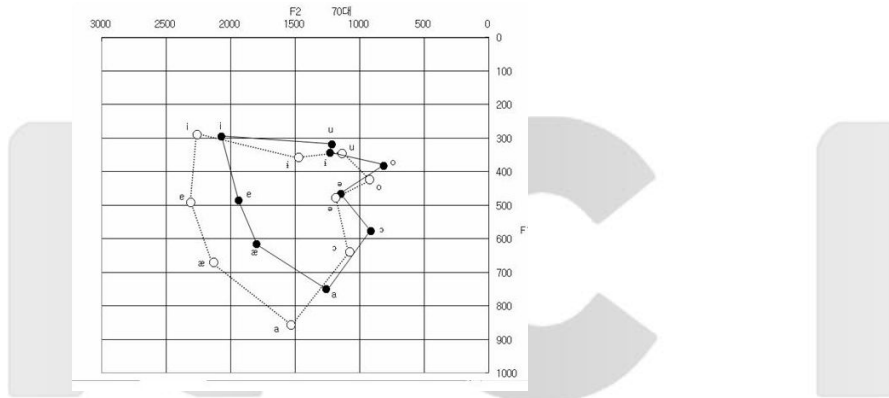
50대의 경우에 [ㅓ]와 [ㅕ]모음의 포먼트 주파수 값이 남자는 511-1790-2550와 494-1799-2570이고, 여자는 607-2330-3058와 532-2327-3059로 음의 고저와 관련있는 F1과 음의 전후와 관련있는 F2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있어서 그 두 음이 거의 구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50대의 경우 [으]모음의 포먼트 값은 남자가 511-919-2653, 여자가 637-998-2901 이다. 이 포먼트 값을 후설 중모음과 저모음인 [ㅓ], [ㅕ], [ㅗ] 모음과 비교해보면 [ㅓ]는 남자가 673-1212-2463, 여자가 946-1584-2841, [ㅕ]는 남자가 442-1012-2496, 여자가 585-1100-2913, [ㅗ]는 남자가 391-809-2571, 여자가 405-865-2776이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50대의 경우 으모음은 70대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모음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발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음의 고저와 관련이 있는 제1 포먼트에서 [으]는 [ㅓ]보다는 낮지만 다른 음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ㅓ]보다는 고모음이지만 다른 모음들 보다는 저모음이고, 음의 전후와 관련있는 제 2 포먼트에서는 [ㅓ]나 [ㅕ]보다는 낮고 [ㅗ]보다는 높아서 전자의 두음보다는 후설모음이지만 후자의 모음보다는 전설모음임을 알 수 있다.

20대의 경우에 [ㅓ]와 [ㅕ]모음의 포먼트 주파수 값이 남자는 503-1824-2586와 507-1826-2623 이고, 여자는 563-2324-3051와 542-2304-3087로 음의 고저와 관련있는 F1과 음의 전후와 관련있는 F2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서 있어서 그 두 음이 거의 구별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의 경우 [으]모음의 포먼트 값은

남자가 477-1002-2779 여자가 603-991-3034이다. 이 포먼트 값을 후설 중모음과 저모음인 [ɪ], [ɨ], [ɯ] 모음과 비교해보면 [ɪ]는 남자가 749-1380-2726, 여자가 868-1377-2795, [ɨ]는 남자가 396-898-2880, 여자가 647-1062-2790, [ɯ]는 남자가 356-788-2648, 여자가 388-787-2799 이다.

이런 사실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하여 (5)에 주어진 포먼트 주파수를 포먼트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70대 이상의 포먼트 도표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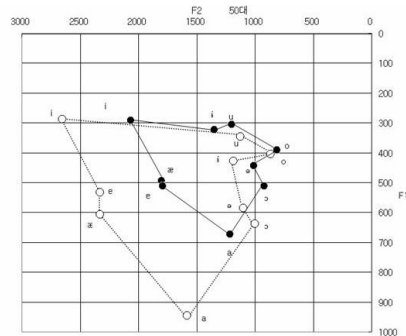
(6) 70대 포먼트 도표(점선 여자 실선 남자)



(6)의 포먼트 도표를 보면 /-/의 위치만 약간 다를 뿐 남녀의 모음체계가 거의 정확히 대칭되는 9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에서 남녀의 발음 모두에서 /ɨ/와 /ɪ/가 분명히 구별되고, 또 /ɔ/도 /a/보다는 높고 /ɨ/나 /ɪ/보다는 낮은 변별적인 음으로 구별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여자와는 달리 남자의 경우 /-/가 /ɪ/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조음되어 후설모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남녀 모두에서 /ɪ/의 F2 주파수 값이 /ɔ/나 /ɨ/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와서 조음위치의 전후관계에서 보면 비슷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70대 이상의 경우는 /ɨ/와 /ɪ/를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아 모음/ɔ/도 유지하여서 9모음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50대의 포먼트 도표를 보자.

(7) 50대 포먼트 도표(점선 여자, 실선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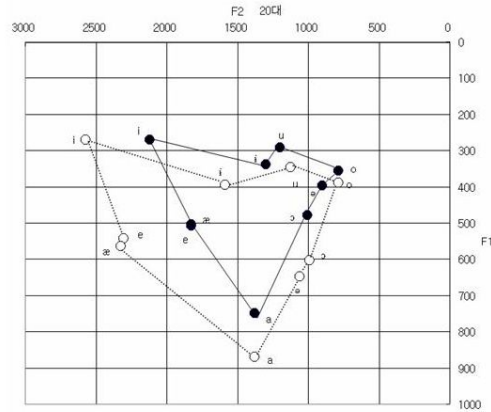
먼저, /ɨ/와 /i/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그 두음이 거의 구별이 안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그 두음의 높낮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나,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전체적으로 F1과 F2의 주파수 값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그 두음사이에 좀더 커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로 녹음 및 분석과정에서

그 두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음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따라서 50대의 경우 /ɨ/와 /i/ 두음의 변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ɚ/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ɚ/음은 50대 남녀의 모음체계에서 다른 후설모음에 대해서 서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ɚ/는 /ɪ/보다는 높고 /ɪ/나 /ɛ/보다는 낮은 변별적인 음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70대와 비교하면 /ɚ/와 /ɪ/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져 있어서 50대의 경우 일부는 70대처럼 /ɚ/음을 다른 음들과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50대에서 특이한 것은 /ɚ/음의 경우 여자나 남자 모두의 경우 /ɚ/음을 /ɪ/와 비슷하게 후설모음처럼 조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50대의 경우는 /ɚ/음을 후설모음처럼 발음하면서 /ɨ/와 /i/는 구별이 안되고 /ɚ/는 변별적인 음소로 존재하는 8모음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대의 포먼트 도표를 보자.

(8) 20대의 포먼트 도표(점선 여자 실선 남자)



위의 포먼트 도표를 보면 20대의 경우 /i/와 /u/는 누가 보든 그 두음이 서로 변별적이지 못하다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o/음이다. 남자의 경우 그 /o/는 /i/나 /u/와 구별되면서 조음의 고저위치상에서 보면 그 세음 중 가장 낮은 위치에서 조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도 /o/는 /i/나 /u/와 구별되면서 조음의 고저위치상에서 보면 /o/는 /i/ 보다는 높고 /u/ 보다는 낮게 조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o/ 음의 조음 위치가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i/음과 확연히 구별되면서 /i/보다 낮게 조음될 수도, 또는 높게 조음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음을 녹음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20대의

경우는 /o/음을 /i/나 /u/와 구별하여 발음하여 구별하지 못하고 모두가 /o/음을 /i/로 발음하거나 또는 /u/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통계분석 결과로는 마치 /o/가 /i/나 /u/와 구별되는 것처럼 나타났다. 여기에 바로 통계상의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자의 경우는 /o/음을 /u/보다 /i/나 /u/ 쪽으로 발음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i/보다 낮은 위치에 나타나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o/음을 /i/나 /u/음 보다는 /u/로 발음한 경우가 많아서 /o/음이 /i/와 /u/ 중간 위치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음의 고저에 따른 조음위치가 남녀에서 서로 다르다는 자체가 그 두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o/의 녹음에서 70 및 50대의 경우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특히 20대의 경우 대다수가 그 음을 제대로 발화하지 못해서 다른 단어들 이룰때면 “바람을 제주도 말로는 어떻게 발음하는가”와

같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아래아 모음이 포함된 단어를 발화하도록 유도하는식으로 /으/음을 발화하는지 확인하였으나 최근의 젊은 세대는 대부분 제주방언사용을 기피하고 표준어를 사용하여서 /으/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20대의 경우는 /ㄱ/와/ㄴ/의 구별도 존재하지 않고 또한/으/음도 존재하지 않는 /7/모음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제주방언에서 세대별 화자에 따른 단모음의 모음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방언의 70대 화자에서는 정승철(1995)의 주장대로 9모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50대에서는 /ㄱ/와/ㄴ/의 구별은 단어에 따라서 또는 성장환경에 따라서 극소수가 그 두음을 구별하는 화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사라졌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20대의 경우는 /ㄱ/와/ㄴ/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두음을 구별하는 화자를 보지 못했다. 또한 /으/에 있어서도 70대 화자는 거의 완벽히 /ㄴ/와 /ㄱ/ 또는 /가 /와는 다른 음으로 구별하여 발음하였다. 그러나 20대의 경우는 /으/음을 독립된 음으로 다른 음과는 구별하지 못하였으나 50대의 경우 개인의 성장환경이나 단어에 따라서 또는 단어의 중간에서는 /으/음을 /ㄴ/와 /ㄱ/와 같은 다른 음과는 구별되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승철(1995)의 주장과는 달리 제주방언에는 세대별로 세 개의 모음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방언화자의 경우 70대는 9모음체계가 유지되고 50대의 경우는 대부분 8모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대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7모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제주방언, 단모음, 음향분석, 세대별, 모음체계>

참고문헌

김현기·이은영·홍기환. 2002. 파워스펙트럼 및 후두내시경을 이용한 방언 음성 의 실험적 연구. 「음성과학」 9(2), 25 - 47.

- 신지영. 2001. 「말소리의 이해-음성학 음운론 연구의 기초를 위하여」. 서울: 한국문화사.
- 이기문. 1998. 제주도 방언의 ‘오’와 관련된 몇 문제. 「방언」, 227-241.
- 이병근·곽충구(편). 1998. 「방언」. 서울: 태학사.
- 정승철. 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 태학사.
- 정승철. 1998. 제주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8(4), 133-152.
- 한말연구학회(편). 1997. 「우리말음운연구」. 서울: 박이정.
- 현우중. 1988. 제주도 방언의 [·] 음가 고찰 「우리말 음운 연구」, 208-240
- 현우중. 1997. 제주도 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우리말 음운연구」, 241-254.
- 현평효. 1985. 「제주도 방언연구 논고편」. 서울: 인우출판사.
- Ladefoged, Peter. 1982. *A Course in Phonetics(3rd ed.)*. San Diego: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Ladefoged, Peter. 1996. *Elements of Acoustic Phone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064) 754-2436, kimwonbo@cheju.ac.kr

접수(Received): 2006년 8월 15일

수정필(Revised version): 2006년 9월 18일